

## 시키보 - 듀얼 액션으로 멘즈를 살리며, 베리에이션 넓혀

시키보는 전략 소재인 ‘듀얼 액션(Dual Action)’을 멘즈(men's) 용도로 개척하고 있다. 면직물답지 않게, 보기에 깨끗한 생지(生地)의 표정이나 경량성(輕量性)을 자랑거리고 내세워 재킷(jacket)감이나 ‘셋업(set-up : 옷을 만들 여러 부위의 천 조각을 모아 옷 만들기)’ 용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치나 기능 가공, 니트 등의 베리에이션(variation : 변화, 변형)을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에게의 제안 내용도 넓혀졌다.

듀얼 액션은 특수한 정방 교연사(精紡 交撚絲)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털이 적고 생지의 표정이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아우터(Outer) 분야로 용도를 넓혀나가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4수 이합 연사(二合 撚絲) 급(級) 연사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 교직의 스트레치 버전(stretch version)이 재킷(jacket)감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키보에서는 비즈니스 신(scene)의 캐주얼화(casual化)를 배경으로 앞으로도 면 재킷(綿 jacket)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재킷 용도로 듀얼 액션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아우터 분야에서는 기능 소재의 니즈(needs)도 여전히 커서 면 100% 방수 통기 소재(防水 通氣 素材) ‘뮤막스( $\mu$ -max)’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트와 재킷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단순한 기능성만의 경쟁에서는 합섬의 투습 방수 소재보다도 떨어져서 투습 방수 소재에 없는 통기성을 강점으로, 타운 캐주얼 용도(town casual 用途)로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2008년부터 듀얼 액션의 니트 버전도 준비해 놓고 있다. 실은 시키보의 최고급면사(最高級 綿絲) ‘소라리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멘즈 용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키보에서는 앞으로 면직물의 약점인 구김살 대책 등에 힘을 기울여 계속 멘즈 용도를 개척할 방침이다.♣